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3주일
2021. 03. 07. (나해) 제2258호

제3주보



대안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탈출 20,1-17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2독서** 1코린 1,22-25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 **복음** 요한 2,13-25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지묘본당 주임 | 박정근 테오도모 신부



사람들은 자주 청소를 하거나 목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것만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될 것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치워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현존이 머물러 있는 성전에 가서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말씀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글자 그대로 성스러움(聖)이 펼쳐져 있는 곳인데 성스러움은 없고 상스러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없고, 인간인 자신만 있고 이익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성전이라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전을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오늘날의 성전인 성당이 어떤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인 성당을 거룩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도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궁전인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과 행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깨끗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고 현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곁에 오신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도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필리**



손수건으로 지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교구 문화홍보국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입학식 날 한 쪽 가슴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가방 안에 휴지나 물티슈를 넣고 다니니 그 시절이 이해조차 힘들겠지만 70년대에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가슴에 훈장처럼 단 손수건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절에 고급 손수건은 선물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뽀뽀하게 다려진 손수건은 신사의 품격이었고, 예쁘고 향기 나는 손수건은 여성스러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손수건은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들을 간직한 수많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낭만은커녕 그 용도조차 넘쳐나는 휴지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어제 우리가 사용했던 냅킨과 휴지는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위생용,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지나 물티슈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용할 때 위생도 중요하지만 폐기물의 위생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제지와 펄프의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세 번째로 큰 산업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8만 그루의 나무가 티슈를 만들기 위해 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삼림 벌채로 야생동물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렴한 티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선택한 수단이 잠깐의 편리함으로 오히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더럽히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휴지 몇 장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지만 그만큼 쓰레기가 생기고 지출이 늘어나고 나무가 쓰러지고 결국엔 생태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터라도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 쓰는 냅킨 한 장, 손을 씻은 후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 30초, 약간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티슈 한 장을 대신해 손수건을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불편하고 귀찮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상의 행동을 바꾼다면 세상은 우리와 함께 변할 것입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덜 더럽히고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 근데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알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거야!”

- 영화 〈인턴〉 중 ‘벤’의 대사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수건 한 장 선물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건넨 손수건 한 장이 기후 변화에 힘 들어하는 지구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필문**

5대리구 가톨릭 구미성경학교를 소개합니다



5대리구 가톨릭 구미성경학교 | 전영순 에반젤린 수녀

찬미 예수님!

5대리구 가톨릭 구미성경학교를 소개합니다. 가톨릭 구미성경학교는 1995년에 시작되었고, 지난해 제23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은 현재까지 약 1500여명에 이르며 각 본당의 훌륭한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5대리구 가톨릭 구미성경학교가 시작된 후 거의 10년 동안은 김천, 상주, 성주, 왜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구미성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망을 따라 2004년에는 김천성경학교를 개설하여 오늘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주나 왜관 지역에서는 우리 구미성경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5대리구 가톨릭 구미성경학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각각 2년 동안 공부하여 총 4년 8학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주 1회 2시간을 나눔과 강의 시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아직 익숙하지 않은 1학년들을 위하여 졸업생 중에서 봉사자가 선정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 중반이 되어서야 입학식과 개학을 할 수 있었고, 넓은 강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리 두기를 지키며 성경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은 많은 학생들의 의기를 꺾어 놓았고, 훗날을 기약하며 도중하차하게 된 아픔이 있었으나, 그런 저런 사정이 있음에도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빛나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강의하는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2021년에 이르러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전히 주변 상황들이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오르는 갈망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성경학교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작은 했으나 도중에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도 다시 도전하시기를 권합니다.

25년 동안 우리 성경학교를 거쳐 가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지지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구미 지역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말씀의 샘터에 5대리구 여러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목마름을 채우십시오. 하느님 말씀 안에서 영적 기쁨과 생명을 살아갑시다. **궤물**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현(李鉉) 안토니오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되어 교회 서적을 얻어보고 천주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삼촌 이희영 루가가 김건순 요사팍의 집에서 살게 되자 자주 그곳을 왕래하였으며, 1797년 가을부터 김건순에게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안토니오는 점차 천주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홍필주 필립보의 집을 찾아갔고, 이곳에서 교리를 더 공부한 뒤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정광수 바르나바, 최필제 베드로, 김종교 프란치스코 등과 교류하면서 교리를 실천하였으며,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그 후 안토니오는 같은 교우인 홍익만 안토니오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이로써 홍필주와는 동서 사이가 되었다. 1800년 겨울에 그는 양친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되어 이현 안토니오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내 포도청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그의 삼촌 이희영도 체포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사형을 당하였다.

문초가 시작되자 안토니오는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계속 문초와 형벌이 가해지자, 잠시 마음이 약해져 '신앙을 버리고 마음을 고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교우들을 밀고하지는 않았다.

이후 형조로 이송된 안토니오는 포도청에서의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 그러고는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신앙을 굳게 지켜 순교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였다. 그러므로 박해자들이 아무리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굳게 신앙을 지킨 다음, 안토니오는 함께 간혀 있던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이었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말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저는 4년 전부터 동료들과 함께 교회 서적을 읽으면서 여기에 깊이 빠졌습니다. ... 여러 해 동안 천주교에 빠져 이를 믿어 왔으니, 이제 아무리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이현 안토니오
(? ~ 1801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으로 초대합니다.

2021~2022년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대구대교구 주교님들과 함께 신구약 성경 전체를 40주간 동안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나 우측 하단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 2021년 4월 4일(주일) ~ 2022년 2월 5일(토)

동영상 강의 강사 : 여한준 롯데로 신부(대구대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신청기간 : 2021년 3월 14일(주일)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를 통한 개인별 가입 및 신청

신청비 : 4만원 문의 : 교구 사목국, 250-3057

가톨릭평화방송의 대표 프로그램
신.신.우.신!
신신우신 2부는 이제 요일별로
각 지역 신부님들이 진행합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2부,
대구아이가~!**

방송시간: 매주 금, 오후 1시 ~ 2시
진행: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
(교구 청년청소년국 차장)
※ 라디오FM 93.1Mhz, cpbc(쌍암),
▶ YouTube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함께 해요~!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박성규 엘리시오



코로나 19로...

성당에서의 신앙활동이 많이 위축...

OO성당

그래도 ...

내안의 성전 만큼은 굳건히!!

당신 몸을 두고하신 말씀이었다. (요한2:2)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10:30 범어성당	3월 8일(월) 11:00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11:00 계산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9일(화) 11:3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8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10일(수)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8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3월 13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매월 지역별 장소 지정

문의: (010)2140-7414

살레시오수도회 성소 상담

대상: 고3, 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3.16(화)~17(수)

시니어: 3.23(화)~24(수)

문의: (054)382-0091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3.15~18(추자도) / 3.21~24(추자도)

3.27~29 / 4.5~8(추자도) / 4.26~28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3.14(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사제와 함께하는 안동교구 문경마원성지

도보순례(성 이윤일 요한 순례길)

일시: 3.19(금)~21(일)

장소: 문경관아에서 상주옥터

참가비: 2만원(숙박제공) / 12명(선착순)

문의: 담당신부, (010)9944-0145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2021.2~12(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남자

문의: (02)828-36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http://www.tcmch.co.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뢰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뢰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차리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진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한국성지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Michal Tour

4월 출발 부산,마산교구
5월 출발 대전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

4.6(화)~4.8(목) 4.23(금)~4.25(일)
5.4(화)~5.6(목) 5.28(금)~5.30(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헬스텍피부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신속진료를 이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속 확장 이진 —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WHISEN 시스템에어컨

영화공조시스템

시스템에어컨 판매 및 설치

아파트(입주, 이사, 거주 가능)
전원주택, 상가 천장형에어컨

010-8857-6781 johnsk@hanmail.net
대표 김광수(세재자호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기수(야고보) 몬시뇰
1996년 3월 12일

행사 | 모임

2021년도 예비신학교 입학 및 개학미사

일시: 3.14(일) 14:00 중1~대학·일반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교구 여성의 날 특강 및 미사 취소

3.8(월) 13:00에 예정되어 있던 교구
여성의 날 특강 및 미사가 코로나19
로 인해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문의: 여성위원회, 254-6115

교육 | 모집

2021년도 1학기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과 가톨릭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합니다.

개강: 3.1(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교실: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수 14:00 /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4번 출구)

문의: (010)3512-1565

코로나로 임시 정원 5명(기초이론포함)

바오로딸 신앙아카데미

일시: 3.20(토) 15:00

장소: 바오로딸 대구서원

주제: 성 요셉의 해 특강

강사: 잠자는 성 요셉 작가 김유리

신청: (010)6681-5185 무료, 사전예약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2021년 겨자씨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화)

구약반: (금) 10:00, (화) 20:00

신약반: (월) 10:00, (목) 20:00

심화반: (금)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010)3475-343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룻,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신청: 254-611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마감: 3.31(수)

과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채용

인원: 2명

상세: 교구 홈페이지 참조

마감: 3.17(수)

문의: 710-1391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모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박)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본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진료문의. 216-7345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러움,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진구)
수성구 왕곡대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요양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정암 ☎ 053-959-7175
010-9597-7175